“육바라밀 실천해 부처님 됩시다”

특별 지상 법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정리=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5월 20일 조계사 초하루 법회에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전하며 “우리 모두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정진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곧바로 일곱 걸음을 걸으시면서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을 말씀하셨지요. 세상에서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은 없다는 뜻인데 모든 중생에게 자기 인격의 존엄함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명에 의해, 욕심으로 인한 인과로 고통받습니다. 모두 일체개고를 떠나 결국은 성불해야 완전한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등 모든 번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하나는 연기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과법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우리는 성불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극락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극락은 행복이라는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입니다. 극락은 곧 성불입니다.

며칠 전 저는 종기 수술을 했습니다. 바쁘다 보니 빨리 제거하지 못했고, 병을 키웠는지 피고름을 짜내며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미련곰탱이’라고 하더군요.

몇 해 전 손가락을 다쳐 지독하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찢어진 곳을 꿰매는데 불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의사 선생님께서 마취를 하지 않으면 더 빨리 아문다면서 마취 없이 꿰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이니까 참을성이 있으실테니 그냥 참으세요”라는 겁니다. 정말 기절할 정도로 아팠어요. 이때 제 마음이 많이 불편했거든요. 수행자인데 불자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속으로 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빨리 아물었어요. 이번에 수술을 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부처님 인과법을 알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행복한 때가 있으면 힘들 때도 반드시 옵니다. 해가 지면 반드시 해가 뜨고, 밀물이 들어오면 썰물이 있지요. 이것이 인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다고 너무 들뜨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즐거운 만큼 과보도 생깁니다. 인과를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이는 성불입니다.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너무 일희일비합니다. 일희일비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쉽지 않기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성취를 위해서는 마음부터 인과에 벗어나야 합니다. 윤회하는 인과를 벗어나야 평상심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좋다 싫다와 같은 감정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옛날 만리장성 북방에 한 노인이 살았죠. 어느 날 전재산이었던 말이 도망가 버렸죠. 가족들 모두 걱정했는데 노인은 아무 표정이 없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 도망간 말이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온 겁니다. 재산이 두 배가 됐다고 주변에서 부러워했지만 이번에도 노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집니다. 얼마나 슬퍼요. 재산도 재산이지만 아들 다리가 부러졌는데, 차라리 말이 없었으면 다리도 부러지지 않았을텐데 말이에요. 그렇지만 노인의 얼굴표정은 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전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쟁터로 끌려갔는데,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면제가 됐네요? 전쟁에 나가지 않고 목숨도 살린 거죠.

지금 이 상황의 과정들을 가만히 보세요. 한번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도 생기고, 나쁜 일 후에는 좋은 일이 반복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되돌아보면 다 그럴 겁니다. 이생에서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전생의 업이 금생에 나타나고, 금생의 업이 내생에 나타납니다. 내생에 고통 없이 살고자 한다면 금생에 잘해야겠지요.

부처님은 부처가 되기까지 오백생을 수행자로 사셨습니다. 선재동자, 설산동자, 금강경에 나오는 인욕보살, 난타여인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지금 등을 켜는 것이 난타보살 덕분이죠. 가난한 여인 난타가 연등부처님께 겨우 마련한 기름으로 등불 공양을 하지요. 바람이 불면서 다른 등불은 다 꺼졌지만 유일하게 난타 여인의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 육바라밀을 행하면 우리 모두 열반의 피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업 없애려면 기도로 내 마음을 보다 편안하게 하고 꾸준한 명상으로 더 이상 업을 짓지 않아야 합니다**

것은 모든 중생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포교 원력이 실려 있습니다. 지혜의 등불입니다.

무구광 동자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부처님께 흙탕물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연꽃을 다섯송이를 공양하고 싶었지만 사람들 틈에 끼어 다가가지 못하죠. 그때 연등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길을 만들어 줍니다. 진흙길이어서 사람들은 다 피했지만 무구광 동자는 부처님께 다가가 꽃공양을 올리고, 머리를 풀어 연등부처님 발이 더럽혀지지 않게 합니다. 공양하는 마음,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세상 모든 중생들을 공경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만나는 모든 것들이 부처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부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사이에 트러블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람간의 관계 속에서 감정이 드러나면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나고 이것이 전쟁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연기라고 하는데,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연기적 과정에 의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는 감정, 내 마음이 편하느냐 편하지 않느냐는 것은 내 몫입니다. 새옹지마처럼 기분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연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특별히 기분이 좋고 나쁠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것이죠. 그걸 평상심이라고 하고, 또는 중도심이라고도 합니다.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끄달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난리가 나죠. 치고 박고 싸우고 고소하다 보면 나쁜 마음이 내 어느 한 곳에 저장됩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 무의식 속에 잠재적으로 숨어 있다가 연기법으로 때가 되면 드러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에 직면하게 되면 점점 더 기분이 나빠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간파하시고 악한 행위를 저지른 과보로 받은 온갖 장애인 업장을 소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인과와 연기를 알려주기 위해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고 필연적으로 피하려고 하면 고통만 가중됩니다. 고통을 담담히 맞이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이러한 마음상태는 생사해탈이 됩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을 많이 지으면 내가 업장을 스스로 없앨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육바라밀을 행해야 합니다. 보시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 육바라밀을 행한다면 열반의 피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 괴로운 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공도 좋고 합격도 좋고 건강도 다 좋지만, 거기에는 인과가 발생하기에 그것이 다 내 감정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업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편안히 하고 업을 더 이상 짓지 않아야 합니다.

탐욕심과 진에심, 우치심의 세 가지 번뇌인 삼독심은 모든 죄악의 근본이 됩니다. 독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지나친 욕심과 성질을 참고 남을 탓하지 않으며 열심히 기도하고 육바라밀을 행해 부처님이 됩시다.

이 법문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초하루를 맞아 5월 2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설한 법문을 요약 게재한 것입니다.

